

» 환절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닭관리 요령

일교차 큰 가을철, 닭 관리에 더 신경 써주세요!

- 환경 변화에 민감...환기·영양·백신접종 등 건강 회복부터 -

제공 : 국립축산과학원



기 온 변화폭이 큰 환절기를 맞아 양계장에 서는 사양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을철 일교차는 10℃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작은 실수로도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닭은 다른 동물과 달리 환경에 매우 민감해 철이 바뀌는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란계 관리

산란계는 가을철 바깥 기온이 떨어지면 사료 섭취량이 늘어 마리당 단백질 섭취량과 알 무게가 증가한다. 무게가 늘면서 난각질이 얇아지고 깨진 계란도 많아진다. 또한, 계란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름철 고온기에 높여 주었던 영양소 수준을 가을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또한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환기가 잘 안 되면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라 먼



지, 각종 병원균에 의한 스트레스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배기 팬으로 양계장 내 오염된 공기를 내보내고 바깥의 찬 공기가 안쪽 공기와 적절하게 섞이도록 해야 한다. 겨울철 뉴캐슬병(ND), 전염성 후두기관지염(IB) 등으로 고생하는 산란계 농가는 11월께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육계관리

육계의 경우, 병아리는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온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처음 1주일 동안 닭장의 온도가 권장 온도보다 높거나 낮으면 병아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발육이 늦어지고 사료효율이 떨어지며 폐사율이 는

다. 병아리를 닭장에 풀어놓을 때는 24시간 전에 열풍기를 가동해 적절한 온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온도 관정은 온도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닭의 분포상태, 운동상태, 움직임, 울음소리 등을 세심하게 관찰해 조절한다. 그러나 온도유지에만 집중하다보면 닭장을 밀폐해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콕시듐증, 장염, 호흡기 질병 발생으로 이어진다.

한편, 가을철에 깔짚 수분이 너무 많으면 콕시듐증이 증가하고, 흥부수종 등으로 육계의 생산성과 생산물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급수기 위치와 양, 누수상태를 자주 점검해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여름을 나느라 많이 지친 닭의 건강 회복을 위해 영양관리, 적절한 환기, 백신 보강 접종 등을 통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 **양계**